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예레미야 · 데살로니가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예레미야 · 데살로니가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2006년 제1차 청지기 훈련(2월 17일)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여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딜레마의 실체는 죄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하늘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1).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2006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지위를 다시 되찾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고난 중에 처해 있던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이 부분을 가리켜 흔히들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 됨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구원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았듯이,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새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면 더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렘 30:17)

기도 제목 ① 우리가 원전히 회복될 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수요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의 언약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언약의 형태를 소개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께 범되지 않는 이상적이고도 온전한 공동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에 있어 너무나도 철저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의 본성은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롬 7:7-9).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외적인 강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를 받아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요 14:17, 26, 행 7:55).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 더 이상 죄악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새 언약의 주된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언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하며, 또한 그분의 구속 경륜에 대한 찬양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렘 31:31)

기도 제목 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모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매입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이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얼마 안 있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시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고 명하셨을 때, 선지자의 마음에는 다소간의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예언의 일관성이 결여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록 죄 때문에 당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본래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의 죄값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으나, 언제나 회개할 때에는 다시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속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살기등등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의 은총과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렘 32:38)

기도 제목 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활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0-13절). 장차 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여 그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14-16절의 다윗 왕권의 영원한 회복과 18-26절의 영원히 계속될 제사장직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이 사실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멸망시키실 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직, 제사장직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기쁨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은 영원불변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렘 33:3)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 유다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포로 됨과 죽음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저버린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주어질 처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떠나자 노예들을 다시 끌고 오는 사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간사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거짓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기만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적 상황에서 표출된 바 있는 언약의식 중에는 송아지를 잡아 둘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걸어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일 언약을 어긴다면 송아지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만홀히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항상 정도(正道)만 있을 뿐이지 결코 변칙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언약의 참여자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됨을 명심하면서, 늘 언약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렘 34:16)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뜻 가운데만 거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을 실례로 들어, 본 장은 유다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술을 금하고, 장막생활을 하였던 바,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 축복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율법을 거절하는 유다의 배도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에 의거하여 포도주를 마시라는 선지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데 반하여, 유다는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다만이 언약 백성이며,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허황된 교만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신분과 업적만을 의지하면서 실재적인 순종과 믿음이 결여된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상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은총의 자녀들의 삶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라면 유다 사람들과 같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취보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렘 35:15)

기도 제목 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4년에 자신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
기로부터 당시까지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
에 모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통해 심판
이 선언되자 유다 왕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두루마리를 태
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했습니
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적극적 핍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실 때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로, 피상적인 경외심만 보
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나중에 권력을 얻을 때
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회개와 순종을 나타내
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렸던
다윗 왕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
하자 말씀에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 왕도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가게 되
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기억하거나 무시해
서는 안 되고, 항상 적극적인 회개와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렘 36: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② 2006년도 단기
선교 계획과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
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본 장은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을 안 예레미야는 매국노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함락을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방백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도움으로 풀려나지만 시위대 뜰에 머물면서 역시 동일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 장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첫 대면을 언급한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와의 두 번째 대면을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11-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며,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렘 37:15)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구역장 영성훈련을 통해서 모든 구역장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37장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는 세력과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출하려는 자들 사이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구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방백들이 두려워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6절). 그러나 곧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의 탄원으로 예레미야는 구출되고(7-13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함과 불신앙으로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무르게 됩니다(14-28절).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짓을 원하는 자, 즉 자신이 원하는 바와 듣기에 달콤한 것만을 듣고자 하는 자와 진리를 선포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위험이 있다 해도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벧전 2:19).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렘 38:20)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게 하소서. ②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그 일족은 예언대로 비참한 처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는 수난을 당하게 되고 가난한 천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의 석방 및 에벳멜렉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는 자신을 진정한 유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 바벨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애굽, 암몬, 모압 등과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반박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것을 주장했던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17,18절).

하나님께서서는 그 예언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심판의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구주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렘 39: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② 제1차 청지기 훈련에 모든 청지기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라마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느부사라단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그다라가 유다 총독이 되어 친 바벨론 정책과 경제 부흥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종친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와 인간적 능력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총독 그다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러한 본 장은 석방된 예레미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의 정책을 언급한 중반부(7-12절)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다라에 대한 음모를 묘사한 후반부(13-16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3절) 이는 바벨론 근위대장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심과 행하심을 알며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나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렘 40:3)

기도 제목 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그다라의 암살 사건과 이스마엘의 만행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요한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라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보낸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로 언약 파기의 대가로 패망했으나, 언약을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여 인간적인 힘으로 유다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 의해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유리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유리하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을 위하여 그 몸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않으면 이리저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좇아가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의 심령이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요한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려 한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이미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만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 장은 요한과 그 일행들의 예레미야에 대한 중보 기도의 요청(1-6절)과 하나님의 응답(7-22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불순종의 결과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의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에 기도에도 응답하셨으며, 백성들에게 죽는 길과 살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황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고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심판에 앞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항상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공황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공황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12절). 우리가 이 공황하심을 입고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어떠한 이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살 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공황히 여기리니”(렘 42:12)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근거하여,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의 모략에서 나온 것으로 억지를 부리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1-7절). 더구나 애굽까지의 무사한 행로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며,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8-13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토록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렇하였더라”(렘 43:7)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자기를 부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형제에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애굽의 다바네스에 도착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생활이 안정되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점차 애굽인들에게 동화되어 이방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본 장에서 이전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상기시키면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1-14절).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더욱 풍요와 행복을 가져온다고 역설합니다(15-19절).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메시지와 동일 선상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 관한 최종 경고를 애달프게 피력합니다(20-30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경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건강 혹은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땅엣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2에서는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천국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천국만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렘 44:4)

기도 제목 ① 위엣 것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량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시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은 바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을 다해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이런 그가 예언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조국의 미래가 참담하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절망은 민족의 아픔을 나누는 절망이 아니라, 개인의 희망이 좌절됨에서 비롯된 절망이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5절).

이에 하나님은 그의 이기적인 포부를 단념시키시고 보다 길고 넓은 안목을 갖도록 권면하시며, 공의의 입장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인해 본문의 바룩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할가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가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게 될”(렘 45:4)

기도 제목 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소서. ② 전 성도들이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여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애굽의 파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애굽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또한 많은 유다인들이 애굽의 도움을 신뢰하던 때에 선포되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애굽과 바벨론을 뱀과 벌목꾼으로 비교합니다. 무성한 숲에 거하던 뱀 애굽은 마치 벌목꾼과 같은 바벨론이 숲을 걷어내자 거처를 잃고 미끄러지게 됩니다(22절). 본문에서는 애굽의 심판에 이어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애굽과 다른 민족들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46-51장).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죄에 대한 징책은 있지만,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27,28절).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믿는 자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흠엿던 그 열방은 다 멸할찌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렘 46:28)

기도 제목 ①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는 애굽에 이어 블레셋의 파멸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 때문에 심판을 선고당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붙였음이라”(암 1:6).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멸망은 모든 것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앗아가 버리는 갑작스러운 홍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2절).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후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블레셋이 결국 이렇게 파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려움을 야기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미움으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마 5:44). 예수님을 모르고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어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오히려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기도 제목 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악습에 빠져 있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새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모압은 비옥한 땅과 좋은 기후로 인해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남북 간의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덕분에 중계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더욱이 모압은 발 빠른 외교 전략과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외국의 침입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교만해졌으며, 그들의 풍요와 안정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모스 우상의 보호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거만과 교만이었습니다(사 16:6).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혈연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을 징벌하여 공의를 만전하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교만을 뒷받침하는 풍요와 안정을 철저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교만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인 그들의 우상을 멸망시켜서, 우상 숭배의 헛됨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모압을 멸망케 하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38절). 이런 모압의 멸망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모압은 독수리 같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입니다. 멸망을 피하여 도주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가 철저히 진멸하실 것입니다(40-46절).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딤후 4:1)

기도 제목 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소서. ② 복음이 살아있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술, 그리고 엘람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에돔 인들은 지혜롭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지혜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14,15절). 에돔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구축한 요새를 신뢰하는 에돔의 교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 대신 군사력이나 정치력만을 의지해 오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주변 국가들이 반 바벨론 정책을 펼 때에도 바벨론의 편에 가담하여 정치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 당했으며, 그 후 남은 자들마저 아람의 침입으로 본토를 잃고 유다의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허무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고전 1:21).

“내져 내가 예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렘 49:10)

기도 제목 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 가운데서 주님 외에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겸비케 하소서. ②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청정기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금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이제 본 장을 통해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31절).

바벨론은 그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악행과 똑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높은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압제하는 자는 결국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한 뒤에 역사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17-2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 때문에 얼마 동안 엄하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찌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찌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렘 50:20)

기도 제목 ① 삶의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케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전 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다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이전 장에서는 단지 '북방에서 오는 한 족속'이라고 언급되었지만, 여기서는 '메대-바사의 연합국'임을 28절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28절).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64절).

그러나 천지만물과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15-26절).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육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 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죄를, 불순물을 제거하여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며, 주저앉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온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라"(렘 51:64)

기도 제목 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소서. ②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원들이 주께 하듯 일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과 성벽 및 성 안의 모든 건축물을 헐어버렸으며,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갔습니다. 24-30절에는 3차에 걸쳐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수효와 바벨론에 의해 처형당한 유다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벨론으로 잡혀 갔던 여호야킨은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은 에일므로닥 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암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 역시 주님께서 붙드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커다란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어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렘 52:34)

기도 제목 ①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형제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 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 니라”(10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활동과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더러는 일을 그만두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은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롬 8:23-25)과 의의 소망(갈 5:5)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굳게 하는데 있어서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슬픔 중에서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계 22:12)

기도 제목 ① 깨어 있어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선교팀 이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여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나...”(4절).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었거나 인간들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을 맡은 자로 보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화 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을 당했으나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부터 생겨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행 4:13,29,31). 특히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2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4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음의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 제목 ① 복음을 맡은 자로 증거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② 생활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10,11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선교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더 잘 아시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자 계획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기도 제목 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22개 교회학교에서 드러질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1절).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자기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히 11:5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갈 1:10)

기도 제목 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9절).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합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자들은 구원 얻음을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성취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설 때에, 구원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10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삼으사, 성도로 그와 함께 영원히 연합하여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십자가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

기도 제목 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오직 믿음으로

2월 구역 공과 초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막 9:23).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땅에 속한 환상이 아니라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성공의 딜레마가 아닌 죄의 딜레마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천국까지 나아갑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집 필 초 점
0203	고후 13:5	너희 자신을 살피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
0210	행 26:13-18	하늘의 환상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라
0217	시 103:1-4	덜레마와 구원	죄의 덜레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0224	막 4:40	믿음이 없을 때	자기를 부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너희 자신을 살피라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

| 찬송 |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 본문 | 고린도후서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 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해 분석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지금 바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 보세요.

믿음은 _____입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묵상한 뒤 나누어 보세요.

고후 13:5 /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친구, 습관, 생각, 삶의 동인(動因)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 위암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친 구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 1:1

잠 13:20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려면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암 3:3). 의와 불의, 그리스도와 우상, 신성한 믿음과 세속, 하나님과 재물, 십자가와 명예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고후 6:17,18 /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한 것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둠 사이에는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습 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약 4:4

요일 2:15-17

습관 또한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습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생 각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악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ی 없습나다(시 10:4). 가족에 대한 생각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마 10:37).

눅 10:27 / 네 ☐☐을 다하며 ☐☐을 다하며 ☐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골 3:2 / ☐☐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빌 4:8 /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되며 무엇에든지 ☐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하며 무엇에든지 ☐할만하며 무엇에든지 ☐할만하
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롬 8:6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현재 나의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삶의 동인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인(動因)은 무엇입니까?

고전 10:31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골 3:17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삶의 동인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십자가로 路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지금 즉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다음의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 친구 /
- 습관 /
- 생각 /
- 삶의 동인 /

자신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살펴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주소서.
2. 친구, 습관, 생각, 삶의 동인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살피게 하소서.
3. 매일 자신을 살펴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거듭나게 하소서.

2과 하늘의 환상

| 초 점 |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라

| 찬 송 |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94장 나 죄중에 헤매며

| 본 문 | 사도행전 26:13-18

¹³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¹⁴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¹⁵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¹⁶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¹⁷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¹⁸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로 갑자기 복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20명에 불과했던 성도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성장과 더불어 박해 또한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박해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비전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은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본 하늘의 환상에 대해서 써 보세요(행 9:1-9, 26:13-18 참조).

다메섹에서 피흘리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품고 있던 비전을 버리고 하늘의 환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사상, 목적과 함께 세상적인 비전을 던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늘의 환상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 하늘의 환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교회를 미워하며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행 26:14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뿐, 아무 소용 없는 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행 26:16,17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_____

이سرائ

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행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_____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닫혀있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체험한 뒤 완전히 변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방법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 가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딤후 1:10,11 /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지라 내가 이 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을 입었노라

빌 1:21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식,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보았던 하늘의 환상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빌 3:7,8

고전 2:2

내가 빛진 자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빛진 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롬 1:14

고후 5:15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광대하고 놀랍습니다. 죄 사함의 가치는 많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마 10:8 /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주어라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영혼은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하늘의 환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라

바울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죽기까지 그것에 충성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롬 14:11,12 / _____

마 25:15 / _____

눅 19:13 / _____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의 가장 멀고 후미진 곳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하늘의 환상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 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상은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빛진 자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소서
2. 복음에 빛진 자임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소서
3.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3과 딜레마와 구원

| 초점 |

죄의 딜레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 찬송 |

찬송가 63장 서산으로 해질 때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 본문 | 시편 103:1-4

^①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
호를 송축하라 ^②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찌어다 ^③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④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을 씌우시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 대신에 성공을 위해서 기도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의 관심도 명예, 권세, 물질적인 부에 대한 축복입니다.

1분 기도 / 요셉의 축복만을 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라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_____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다윗의 딜레마

다윗은 자신의 명성이나 성공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 103:1 /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하라

다윗은 자신의 딜레마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 103:2-4 / 내 영혼아 여호위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 41:4 / _____

그는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딜레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인 죄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 51:4 / 내가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합니다. 또한 죄를 숨기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 1:18 / _____

마 4:17 / _____

눅 13:3 / _____

행 17:30 / _____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를 도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은 머지않아 닫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영혼에 상처를 주는 죄

죄는 인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온갖 질병을 가져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신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 55:23 / _____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시 23:3). 진정으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죄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갇힌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을 가둡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는 진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 3:18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약 2:10 /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단 하나의 죄일지라도 죄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현실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의 열쇠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路

오직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구원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해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계 3:20 / _____

요 7:37 / _____

계 22:17 / _____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죄의 딜레마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죄의 딜레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딜레마임을 깨닫게 하소서
2. 십자가 앞에 진실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죄를 회개케 하소서
3. 죄의 딜레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4과 믿음이 없을 때

| 초점 |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 찬송 |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본문 | 마가복음 4: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영양실조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영양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는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 나누어 보세요.

고후 5:7

롬 1:17

우리에게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두려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막 4:40 /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 없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죽을지도 모른다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형벌이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요일 4:18 / _____

마 6:24 / _____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타협

믿음이 없을 때 사단과 타협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딤후 1:12 / _____

믿음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불신의 견물이 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할 때 사단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무 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총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후 3:14-16 /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살전 2:10-12 /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하고 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이 불신의 베일로 가려진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셨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능력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 17:19,20 / _____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마 13:58).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있던 앉은뱅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행 3:6 /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는 신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심 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히 3:12 /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 염려할 것이요
요 3:18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롬 14:23 /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 9:24).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믿음은 승리를 줍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큰 위험에 빠집니다.

막 9:23

믿음의 삶을 위한 나의 기도제목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여 주소서
2.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3.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공과주

남성도 구역예배공과'는 남성도 구역예배공과'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도 구역예배공과'는 남성도 구역예배공과'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도 구역예배공과'는 남성도 구역예배공과'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막 4:40)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영양실조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영양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신자들의 미래에 관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신자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두려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

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용기가 없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죽을지도 모른다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형벌이 됩니다. 요한일서 4:18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마 6:24). 믿음의 결핍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타협

믿음이 없을 때 사단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온갖 이유들을 제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지시나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단에 의해 요동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교리, 원칙, 방법들을 들먹이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믿음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불신의 건물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믿

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 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항상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총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14-16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 주셨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살전 2:10-12). 마음이 베일에 가려진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능력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

리라”(마 17:19-20).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마 13:58).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있던 앞은뱅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심 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3:12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세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의심이 밀려올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믿음은 승리를 줍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막 9:23).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큰 위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8년 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이장훈(1-7일), 김태석(8-15일), 한진집(16-23일), 이장수(24-26일) 목사

구약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충.판국(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3-1 전화 552-8200)) | 배매동